

예전에 경북 대표 보호수였던 회화나무



지정번호 의성-11-11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의성
수령 760년
수고 12m
흉고둘레 3m, 1.2m



경북 의성군 다인면
평림리 543-4
36° 28' 08.44" N
128° 21' 29.16" E

시골길을 가는 곳의 보호수(의성-11-11) 회화나무는 길가를 약간 벗어난 발 사이의 공터에서 두 그루가 힘겹게 자라고 있다. 회화나무의 나이는 760년으로 추정된다. 긴 세월의 760년은 우리나라의 모든 회화나무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나무 중의 하나이다. 나무높이는 12m, 가슴높이둘레는 큰 것 300cm, 작은 것 120cm 정도이다. 밑동둘레는 한쪽의 큰 줄기가 고사하였으므로 측정하지 않았으나 예전의 기록으로 보면 600cm 가량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4m 정도이다. 회화나무는 오래 살고 있는 만큼 생육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 나무높이는 예전에 20m 이상이었으나 현재 12m로 많이 줄었다. 나무높이가 줄어든 이유는 오래전에 마을에 불어닥친 태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큰 줄기가 부러졌기 때문이다. 나무높이는 가장 굵은 줄기가 꺾어져 그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고, 나무모양도 남아 있는 위쪽 가지의 말라 죽는 부분을 굵게 잘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풍성하지 않게 되었다. 부러져 죽은 나무줄기는 옛 모습에 맞추어 충전재로 채우고 겉쪽은 오래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시멘트 재질로 감싸 보호하였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풍습 및 민속과 관련하고 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이 회화나무는 마을의 상징목이자 수호목이다. 마을 사람들의 자랑이다. 회화나무의 잎이 무성하게 돌아나면 마을이 평안하고, 더 발전한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또한 예전에는 경북을 대표하는 보호수의 하나로 지정하여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애쓰기도 하였다. 1982년 보호수로 지정된 후 공식적인 보호수 표지석이 세워졌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차지 않아 경북 보호수 기념비를 회나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인 보호수 표지석보다 훨씬 크게 세우기도 하였다. 회화나무 인근은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를 줄지어 심어 작은 마을 숲을 이루고 있다. 이곳은 마을의 쉼터로 이용하는 정자의 자미정이 있다. 자미정은 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친 비봉산의 옛 이름인 자미산에서 따온 이름이다. 한편 750년의 긴 세월을 살아온 회화나무의 인근에 또 다른 회화나무가 보호수로 자라고 있다. 평림리 회화나무가 서 있는 마을을 죽림마을로 부르는 이유는 비봉산에 머무르는 봉황의 먹이가 대나무 열매라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